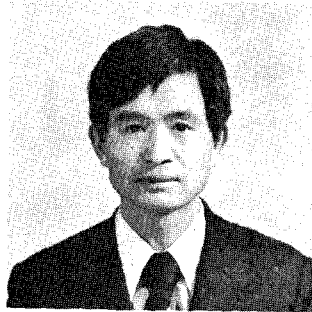


# 육성기의 특수관리

## - 점등, 닭 옮기기, 부리자르기 -



이 동 명  
〈덕일농장·농장장〉

### 1. 부리자르기 (Debeaking)

#### (1) 부리자르기를 하는 목적

- a. 풍지쪼기(Canivalism) 예방
- b. 사료중의 알곡만 골라 먹는 편식의 예방
- c. 식란벽의 예방
- d. 닭 성질이 온순해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육성중에 부리를 자르게 되는데 적당한 위치를 잘라야만 하며 시기가 늦으면 부리가 굳어져서 작업상 능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혹 지혈이 안되는 개체는 폐사가 되고 닭이 큰만큼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또 적당한 위치를 잘라야 디비킹의 목적하는 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너무 길면 하나하나 할 것이고 너무 짧으면 사료통에 사료를 완전히 쪼아 비우질 못하므로 부리에 묻은 물과 입에서 토해 낸 물이 사료통 밑바닥에 남은 사료찌꺼기와 범벅이 되어 사료통 바닥에 늘어붙어 사료가 변질되며 그 변질되는 사료는 매일매일 늘어나게 되므로 사료통 바닥을 꼭 긁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디비킹시 길게 자른 부리는 다시 정정할 수가 있지만 짧

게 자른 부리는 다시 고칠 수가 없어 영원한 불구의 닭이 된다.

#### (2) 부리자르기의 적당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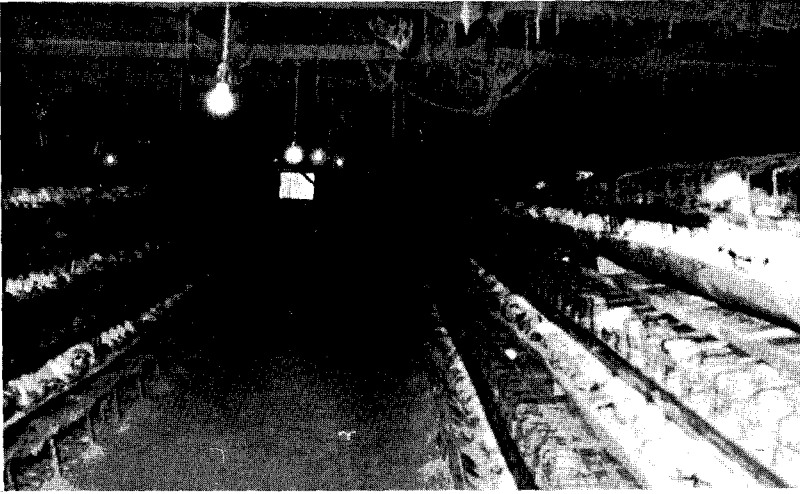
일의 능률로만 생각하면 부리가 굳기 전인 어린 병아리 일수록 좋다. 또 닭에게 미치는 스트레스를 생각해도 어린 때일수록 영향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병아리가 어릴수록 부리가 작고 연하며 부리가 작을수록 자르는 위치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고 정확한 위치를 자르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보통 4~5일령에 부리를 자르는 것이 작업상 적당하다.

늦게 부리를 자르면 단점이 많다. 단, 자르는 위치만은 정확히 자를 수가 있다.

#### (3) 부리자르는 위치

너무 길게 남겨 놓으면 생장점이 남게 되어 디비킹 후에 다시 부리가 자라나 안한 것과 같고 너무 깊게 자르면 닭 자체가 사료섭취에 지장을 받아 약추가 되고 사료통에 사료를 완전히 비우질 못한다.



빛은 눈을 자극하고  
성성속을 자극한다.  
점등의 효과는 점등시간 그  
자체보다는 점등시간의  
변화에 따라 성성속이  
지연도 되고 촉진도 된다.



디비커의 각도를 아래로 숙여 아랫부리가 더 잘라지도록 하여야 닭이 평면을 쪼을 때 부리가 평면 바닥에 닿는 면이 자연스럽게 된다(아래, 윗 부리의 턱이 없어진다).

#### (4) 디비커(Debeaker)

시판되고 있는 디비커 중에는 10주령 이후에 윗부리 따로 자르고 아랫부리 따로 자르는 절단용이 있지만 작업상 능률이나 지혈이 안되고 폐사가 되는 등 단점이 많고 여기서 필자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대기(150W)를 구입한 후 고대기 끝부분에 있는 원통형 구리 축을 뺀 후 망치로 두드려 원통을 납작하게 판으로 만들어 끼우면 열판이 된다. 이 전열판에 병아리의 부리끝을 눌러 대면 연한 병아리의 부리는 타면서 지져진다.

## 2. 점 등

빛은 눈을 자극하고 성성속을 자극한다. 점등의 효과는 점등시간 그 자체보다는 점등시간의 변화에 따라 성성속이

촉진도 되고 지연도 된다.

점등시간이 줄어드는 변화는 성성속을 지연시키고 점등시간이 늘어나는 변화는 성성속을 촉진시킨다. 14시간이라는 많은 고정점등보다는 적은 점등시간이라도 9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는 점등변화는 성성속을 촉진시킨다.

육성시의 점등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예정초산일령을 맞출 수가 있다. 즉 점감 점등으로 성성속을 지연시키다 너무 늦을 경우 점증 점등을 시작해서 초산일령을 늦추고 당길 수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숙은 육성비의 절감은 되지만 난중 후반기 산란지속성, 산란율 등 종합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육성중의 점등시간은 늘려주지 말 것이며(조숙방지, 성성속의 지연) 산란중의 점등시간은 줄여주어서는 안된다.

환연하면 육성중에는 성성속을 지연시켜서 조숙을 막고 초산일령을 늦추라는 말이다.

자연일조시간은 동지와 하지를 정점으로 일조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싸이클(Cycle)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가 입추 후 자연일조시간에 점등을 방치시킨다면 동지를 지나 하지를 향해서 일조시간이 늘어나는 계절에 육성된 병아리는 조숙이 될 것이고 하지를 지나 동지를 향해서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에 육성된 병아리는 성성속이 지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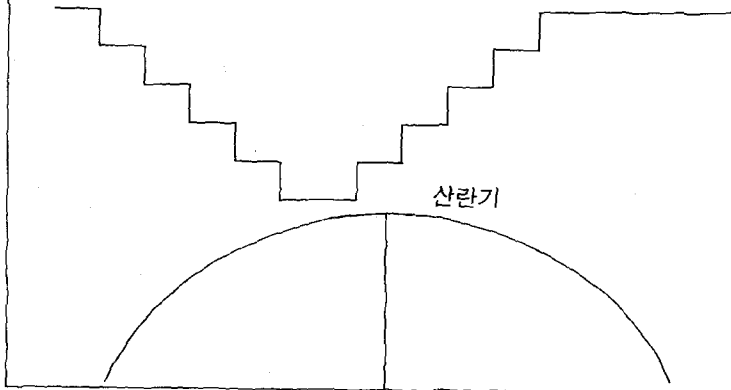
이렇게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에 육성되는 병아리는 자연일조시간에 맡겨놓은 채 점등을 무시해 두었다 예정 초산일령 가까이 가서 성숙도를 관찰하여 기초자극 점등시기를 정하여 점증 점등을 시작하여야 한다(적어도 12시간 30분).

반대로 동지를 지나 하지를 향해서 일조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계절에 육성되는 병아리는 성성속이 촉진되므로 그대로 일조시간에 방치해 두었다가는 조숙이 되므로 늘어나는 자연일조시간을 인위적으로 막아 줄어드는 점등으로 대체시

전열판에 닿는 부리의 각도, 잘라내는 부리의 위치등을 정확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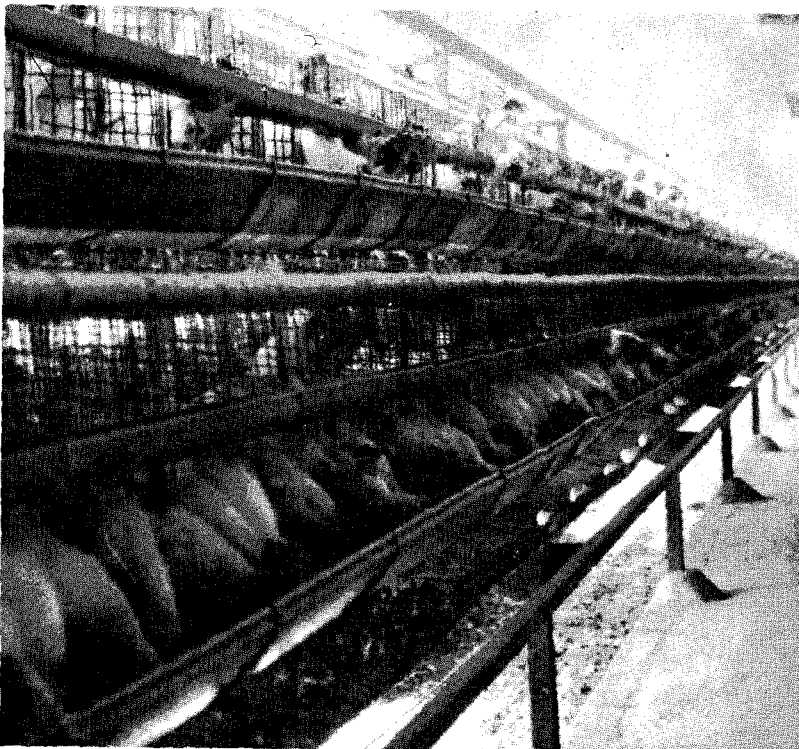


점  
등  
시  
간



일령 초산시

# 매일 먹는 계란 속에 완전영양 평생건강



육성계사에서 성계사로  
옮기는 시기는 늦을수록  
성계사 이용율 면에서 좋다.  
이는 같은 성계 Cage를  
가지고 연중생산 산란갯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켜야 한다.

즉 일주일에 15분 정도씩 줄여줄 계획하에 점등시간을 억  
산하여 합한 점등시간을 계산해서 즉 초산시 일조시간 +  $\alpha$   
만큼의 점등을 시작하여 일주일에 15분 정도씩 줄여주다  
보면 초산시 자연일조시간과 만나게 된다. 여기서도 기초자  
극 점등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계절에 관계없이 육  
성 중에는 점등시간의 변화를 점점 줄여주어 성성숙을 지  
연시킨다.

### 3. 닭 옮기기

육성계사에서 성계계사로 옮기는 시기는 늦을수록 성계사  
이용을 면에서 좋다.

성계사로 이동해서 바로 알을 낳는 성계가 되기 때문에  
성계사를 차지하면서도 육성계 노릇을 하는 시간을 단축시  
킨다. 즉 같은 성계 Cage를 가지고 연중생산 산란갯수를  
늘릴 수 있다.

초산 직전인 17~18주령에 성계사로 옮기는 것이 경제적  
이라고 생각한다. 계사가 크면 하루에 이동을 다 못할 경우

가 있고 그럴 경우 육성계사와 성계사 사이에 사료관리가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계사에 미리 사료를 급여해  
놓고 공복인 상태로 병아리를 옮기면 배설물도 없고 성계  
사에 가자마자 사료를 먹을 수 있어 닭에게도 좋다.

닭 이동시 이동상자 밑바닥에 병아리 발톱부분이 물려 상  
하지 않도록 바닥에 공지대를 접어 깎아내려 병아리  
를 보호하고 이동상자는 한칸에 적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  
게 적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병아리 암사예방, 스트레스 방지  
등 닭에게 유리하다.

옮기는 날씨는 기후조건상 바람이 없고 청명한 날을 골라  
옮기는 것이 좋다. 많은 병아리를 취급하다 보면 육성계사  
케이지에서 꺼내는 과정, 성계 케이지에 넣는 과정에서 다  
리·날개 등이 부러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마리의 육성계는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소중  
한 재산이다. 옮기고 나서 2~3일간은 호흡기 질병의 체크  
가 필수이다.

옮기는 과정 이동후 계사조건 변화에서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

## 당신이 양계의 전문가이듯 애드보아는 광고와 인쇄제작의 전문가입니다.

**주목** 받는 광고! 판매와 직결됩니다.

꼭같은 지면, 꼭같은 광고료 또는 제작비.

그러나 수준과 솜씨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현명한 광고주는 광고에 관한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축산을 알고 광고를 아는 축산 전문기획.

애드보아! 믿고 맡기시면 확실한 결과로 보답합니다.



광고제작 / 팜플렛 및 사보제작 / 각종 슬라이드 기획제작 / 홍보계획 및 광고계획 기획집행



**애드보아**

서울·중구 필동 1가 43-1  
(동화B/D 606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카피라이터  
**김 정 규**